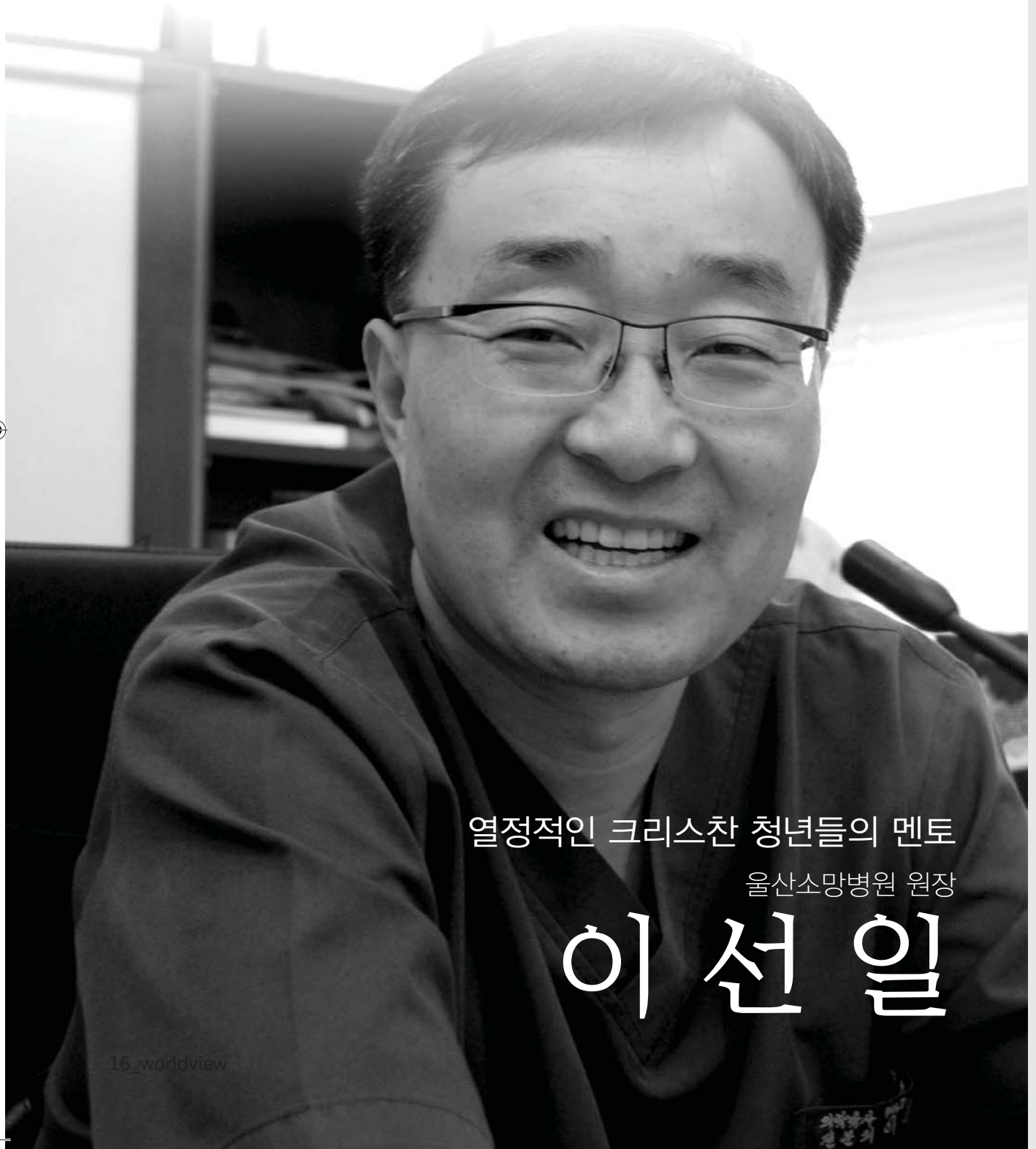




PEOPLE &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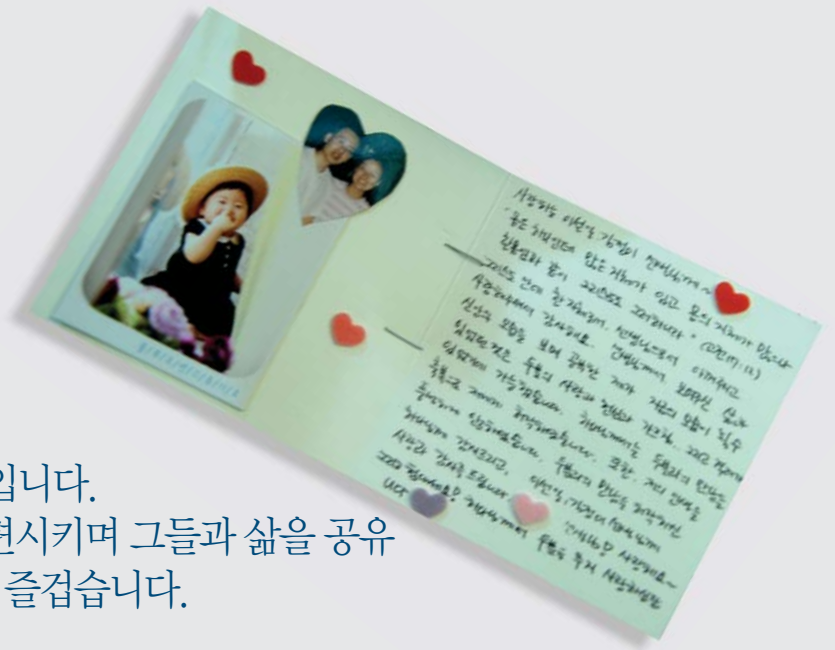
열정적인 크리스찬 청년들의 멘토

울산소망병원 원장

이 선 일

16_worldview





가르치는 일은 저의 달란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며 그들과 삶을 공유
하여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가족소개와 현재 섬기고 계신 교회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주안에서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있는 청년사역자인 아내와 3자녀가 있습니다. 큰 딸과 큰 아들은 뉴욕과 보스턴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아내가 46세에 낳은 일곱 살 막내는, 노부부인(?) 저희와 함께 울산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울산의 태화교회(예장 합동)에 출석하고 있으며 교육사로 있습니다.

현재 울산소망병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병원을 소개해 주세요.
먼저 “소망”이라는 병원이름은, 목사님이신 아버님께서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근거로하여 지어주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큰 병원이라기보다 약간 규모가 작은 개인 클리닉으로서 약 30여명의 식구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열악한 사정과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으로, 요즘 대부분의 개원가가 그러하듯이 우리 병원도 일반적인 수술 외에는 거의 일반의(General Physician) 수준(?)으로 환자들을 치료하

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저희 병원만의 특징이 있다면, 아침 예배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1시간씩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침 시간을 약간 힘들어하는 식구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 창립(16년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배의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있기에 우선 순위에서 전혀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병원만의 특권이지요. 이러한 은혜로, 우리 병원은 두말할 것 없이 실력면과 친절 서비스면에서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수술 후 상처 치유가 빠릅니다. 지난 세월동안 단 한 번도 의료사고가 없었던 병원이지요. 울산에 오셔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또한 우리 병원은 사역자분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Full time Missionary들의 Retreat Center로서 그동안 국내의 미자립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부부들이 약 10,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1달에서 3달간 그냥 쉬다가 가기도 합니다. 물론 진단과 치료도 병행하며 100% Free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보험카드가 있으면 청구는 합리하지만, 그래도 거의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많이 아쉽게도, 저희 병원을 찾는 분들의 대다수는 보험카드조차 없더군요.

끝으로 저는 우리 병원을 통해서 놓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등대와 나팔’의 역할입니다. (환자와 처음 대면할 때는, 등대의 역할로 최선을 다해 뜨거움의 빛, 친절과 사랑으로 환자를 대하고, 환자가 쾌유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된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의 열정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



병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감사의 편지들





고 싶지 않고 싶어요.

병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많은 사역들을 돕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와 은혜로 하는 사역을, “돕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소개 해드리자면 그동안 청년사역자로 강의와 교육, 훈련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청년사역은 지난 인생에서 제가 가장 즐겁게 일했던 것 중의 하나입니다. 저에게 딱맞는 사역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의 결실로, 1998년에 창립한 ‘초교과 청년연합공동체(HRC HOPE Retreat Center)’가 있습니다.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Parttime 사역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청년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은 저희 부부의 땀과 눈물의 결실이지요. 이 밖에도 현재 청년코스타, Youth KOSTA, 창조회, 낮은올타리, C-LAMP(크리스천최고경영자)총무, 두란노결혼예비학교, CLA(Christian Leadership Academy)강사, 현대종교 등의 단체들과 손잡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동역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일에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시작하게 되셨으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원장님을 통해 훈련되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친조부께서는 용현교회의 영수로 계시다가 순교하셨고, 아버님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예장 합동)중 한 분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사에 대한 꿈이 생겼었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보조교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고등학교 1학년때, 꿈에 그리던 정교사가 되어 얼마나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가르치는 일은 저의 달란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탁월하며(자타공인)웃음) 그들과 삶을 공유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고 1때부터 지금까지 교사에 대한 꿈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며 청년사역을 꿈꿔왔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청년들을 만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잠재력 있는 청년들을 만날 때면 엄청 흥분하곤 합니다.

청년사역의 20여년 중 전반기 10여년은 주로 ‘도전과 자극(Challenge & Impact)’을 통한 강의로 불씨 사역을 하였고, 후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멘토링 등을 통하여 불꽃 사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전문성으로 청년사역자를 꿈꾸는 Part time 사역자 멘토리들이 150여명 배출 되었고, 지금도 저희들과 교제하며 삶을 나누고 있지요. 이들은 저희 부부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입니다.

세계관동역회와는 어떤 인연으로 함께 하게 되셨는지요?

약 20여년 지기(知己)인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의 양승훈 교수의 추천으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동역회 내의 소중한 여러 지체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점점 더 관심과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관동역회의 사역들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있으신다면?

바라는 것 보다는,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뭔가 좀 더 동역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입니다. 아울러 꼭 바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룬 동역회의 모든 지체분들의 삶과 사역에 감사의 조건이 앞으로 더욱 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 인하여 동역회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비추는 영적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사역계획이나 함께 나눌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계획과 기도제목으로는 첫 번째, 동역자인 아내와 함께 남은 후반기의 청년사역을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 건축하다가 중단된 병원 건물의 증축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건물의 증축(3층에서 10층까지/바닥면적 160평)을 통해 청년과 청소년, 부부들,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사역이 더욱 더 확장(질적인면에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